SKT, 1000억 투자로 한국형 소버린 구현… AI 3대 강국 도약

유영상 대표, 'AI 서밋' 기조연설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GPU 클라우드로 AI 연산능력 강화
에지 AI 도입으로 저지연·보안↑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내 지역 거점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SK AI Summit 2024)'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유대표는 인프라 기반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AI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AI(Edge AI)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SK 정보통신기술(ICT)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상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강국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성공방정식이 AI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차세대 AI의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AI DC 허브' 도약 … 미국 람다와 협력

먼저 SK텔레콤은 국내 지역 거점에 100MW(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DC)를 시작으로 향후 그 규모를 GW(기가와트)급 이상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DC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AI DC를 지역 거점에 구축하면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해저케이블을 통한 글로벌 확장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SK가 보유한 고효율 차세대 반도체와 액침냉각 등 에너지 솔루션, AI 클러스터 운영 역량을 결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AI DC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상 대표는 "SK가 보유하고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반도체와 액침냉각 등 에너지 솔루션, AI 클러스터 운영 역량을 결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AI DC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역량과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이 결집된 AI DC 테스트베드를 오는 12월 판교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곳은 엔비디아 최신칩과 하이닉스 HBM 등 첨단 AI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3종을 비롯 GPU 가상화 솔루션, AI 에너지 최적화 기술 등이 모두 구현된 국내 유일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형 AI DC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중장기적으로 GW급 AI DC를 통해 ▲5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유치 ▲5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175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지역에서의 AI 첨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은 국내 GPU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가산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해 클라우드 형태로 GPU를 제공하는 GPUaaS를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미국 람다와 협력을 통해 오는 12월 H100 기반의 GPUaaS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최신 GPU H200을 도입하며 고객사 수요에 맞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형 소버린 AI' 구현에 1000억 투자

SK텔레콤은 2025년부터 총 1000억원을 투자해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SK하이닉스의 HBM, SK텔레콤과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AI DC 솔루션을 결합한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현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NPU 팜(Farm)을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공공 영역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 및 클라우드 사업자, K-AI 스타트업과 협력해 AI 기술 자립 및 생태계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에 연결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AI DC와 '온디바이스AI'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에지 AI(Edge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지AI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AI 컴퓨팅을 결합한 인프라다. 대규모 AI DC 대비 저지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AI' 대비 대규모 AI 연산이 가능해 기존 AI 인프라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엡손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세이코 엡손(엡손)이 대용량 잉크탱크 잉크젯 프린터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용량 잉크탱크 프린터는 필요할 때마다 잉크탱크에 잉크를 보충해 사용하기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일반 잉크젯 프린터보다 유지비용이 적고 편리하며 폐기물의 양도 적다.

엡손은 2010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첫 대용량 잉크탱크 프린터를 출시해 현재는 약 170개국 및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엡손 관계자는 "대용량 잉크탱크 프린터는 신흥 경제국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개발됐다"면서 "출시 이후 엡손은 프린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용량 잉크탱크 프린터는 가정용 및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서 약 45%의 출하량을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한국앤컴퍼니,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해 '임원 인사'

인사 핵심 키워드 '프로액티브 리더'
지주사·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이수일 부회장

안종선 사장

이상훈 사장

박종호 사장

구본희 부사장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의 시행일은 12월 1일이다.

이번 임원 및 PMI 추진단 인사 핵심 키워드는 프로액티브 리더(Proactive Leader)이다. 프로액티브 리더는 조현범 회장이 주문한 그룹 차원 인재상이다. 조 회장이 주도한 기업 문화 '프로액티브(Proactive) 컬처'와 마찬가지로 능동적·혁신적으로 일하며 미래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우선 한온시스템 PMI(인수 후 통합) 추진단이 발족되며, 추진단장으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확대,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출시 등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국타이어 신규 대표이사로는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훈 한국타이어 구주본부장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이 승진 내정됐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에는 박종호 한국타이어 경영지원총괄 사장이 내정됐다.

구본희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총괄 부사장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등의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타이어 기술력을 글로벌 최상급 수준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중공업의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유럽 시장서 품질 신뢰 입지 탄탄

효성중공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전력기기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Orsted)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2027년까지 영국 '혼시4(Hornsea 4)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400kV(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리액터(전력 품질 향상 장치)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4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 해안 인근 지역에 전력량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주를 성공함에 따라 올해 유럽에서만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유럽에 진출한 이후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품질 신뢰를 확보하면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3분기 영업익 4702억… 고인치 타이어 판매 증가

한국타이어 전년대비 18.6% 증가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 4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고성능 신차용(OE) 타이어 판매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4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4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4924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두 분기 연속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이어갔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9.3%로 지난해 3분기 16.9%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 증가한 2조435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순이익은 28.4% 늘어난 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 호조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증가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PC/LT) 매출 내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비중은 44.8%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상승했다. 지역별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중국 66.5%, 한국 58%, 북미 52.8%, 유럽 34.6% 등이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BMW M5, 메르세데스-AMG GT 쿠페 등 고성능 차량을 비롯해 글로벌 프리미엄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 확대했다. 또 세계 최초로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빠르게 선보이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아이온은 2022년 출시 이후 16인치부터 22인치까지 총 236개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